

2026.06.29.

LS의 등급전망 ‘긍정적’으로 변경:

A+(S)/A2+ → A+(P)/A2+

문시도 기업1실 연구원 유준위 기업1실 수석연구원 최주욱 기업1실 실장
02.368.5526 02.368.5403 02.368.5303
sdmoon@korearatings.com jwyoo@korearatings.com jwchoi@korearatings.com

한국기업평가(이하 ‘KR’)는 2026년 6월 26일자로 (주)LS(이하 ‘동사’)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로 유지하고, 등급전망을 기존의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변경하며,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A2+로 유지한다.

[표 1] 등급전망 변경 내역

회사명	대상채권	종전		금번	
		등급	Outlook	등급	Outlook
(주)LS	무보증사채	A+	안정적	A+	긍정적
	기업어음	A2+	-	A2+	-

1. 등급전망 변경 사유(Key Rating Rationale)

금번 등급전망 변경은 1) 주력 자회사인 LS전선의 등급전망이 ‘긍정적’으로 변경된 점, 2) 낮은 자체 재무부담으로 통합신용도와 동일한 신용등급이 부여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한 것이다.

1) 주력 자회사인 LS전선의 등급전망이 ‘긍정적’으로 변경되었다.

동사의 주력 자회사인 LS 전선의 신용등급 등급전망이 변경되었다. LS 전선은 국내 최대 종합전선업체로 전선 소재부터 초고압케이블에 이르는 다각화된 제품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과점구조의 국내 전선시장에서 선도적인 시장지위를 바탕으로 우수한 사업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AI 및 데이터센터 구축 확대에 전력인프라 투자가 증가하는 등 우호적인 사업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영업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2026년 3월말 연결기준 LS 전선의 수주잔고는 8조 5,000억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5년 연결기준 매출 또한 직전연도 대비 12.2% 증가한 7조 5,882억원을 기록하는 등 우수한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향후 미국 해저케이블 공장 건설 등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자금소요 부담이 예상되나, 영업실적 개선에 기반한 총영업현금흐름 확대와 대형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유입된 선수금 등을 바탕으로 차입부담은 일정 수준 내에서 관리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LS전선 수익성 추이(연결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5.1Q	'26.1Q
매출액	66,215	62,171	67,653	75,882	19,437	20,437
EBIT	2,196	2,325	2,745	2,798	831	971
EBITDA	3,240	3,386	4,302	4,374	1,191	1,435
당기순이익	1,015	1,054	447	1,006	125	292
EBIT/매출액	3.3	3.7	4.1	3.7	4.3	4.8
EBITDA/매출액	4.9	5.4	6.4	5.8	6.1	7.0

자료) 공시자료

동사는 LS 그룹의 지주회사로 전선, 산업기기, 비철금속 등 다양한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어 신용도 산출 시 Building Block Approach 가 적용된다. 통합신용도는 주요 사업 자회사들의 자체신용도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되며, 동사의 주력 계열사인 LS 전선, LS 일렉트릭, LS 엠앤엠, LS 아이앤디의 2023~2025년 평균 가중치는 각각 30.1%, 29.0%, 28.9%, 12.0%이다. 현재 통합신용도는 LS 전선[A+(긍정적)], LS 일렉트릭[AA-(긍정적)], LS 엠앤엠[A1] 및 LS 아이앤디의 자체신용도를 반영하여 산출되고 있다. 이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LS 전선의 신용도가 상향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동사 통합신용도 개선에 있어 긍정적 요인이다.

2) 낮은 자체 재무부담 등으로 통합신용도와 동일한 신용등급이 부여되고 있다.

동사는 순수지주회사로 구조적 후순위성이 존재하나, 낮은 자체 재무부담과 다각화된 자회사 구조, 안정적인 현금창출력 등을 감안하여 통합신용도와 동일한 신용등급이 부여되고 있다. 2025년 10월 LS 전선(1,500억원) 및 2026년 3월 LS 엠앤엠(2,000억원) 유상증자 참여 등에 따라 차입부담이 확대되었으나, 2026년 3월말 별도기준 이종레버리지(종속 관계기업투자자산/자본총계) 119.0%, 2025년말 순차입금/실질현금창출력 4.3배를 기록하는 등 자체 재무부담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3] 자체 재무레버리지 추이(별도 기준)

(단위: 억원)

구분	2022(12)	2023(12)	2024(12)	2025(12)	2026(03)
현금성자산	898	980	791	636	364
종속관계공동기업투자자산	50,185	55,738	51,389	57,046	59,535
총차입금	11,418	6,926	7,162	8,535	10,259
자본총계	39,715	44,231	45,121	49,366	50,020
순차입금	10,519	5,946	6,371	7,900	9,896
실질현금창출력	1,741	2,846	2,431	1,819	N/A
이종레버리지	126.4%	126.0%	113.9%	115.6%	119.0%
순차입금/실질현금창출력	6.0배	2.1배	2.6배	4.3배	N/A

주) 1. 이종레버리지 = 종속관계공동기업투자자산 / 자본총계

2. 실질현금창출력 = 영업수익 - 종속관계공동기업 지분법이익 + 배당금수령액

자료) 공시자료, 동사제시

2. KR의 전망

1) Key Factor의 가정

KR은 동사의 향후 사업 및 재무 전망에 있어 주력 자회사의 이익창출력 유지 여부, 계열사에 대한 지원 부담이 Key Factor 라고 본다. Key Factor에 대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 **주력 자회사의 이익창출력 유지 여부:** 동사의 신용도는 주력 자회사인 LS전선[A+(긍정적)], LS일렉트릭[AA-(긍정적)], LS엠엔엠[A1], LS아이앤디의 사업경쟁력과 재무안정성에 기반하고 있다. 이들 자회사는 전선·전력기기 제조 및 비철금속 제련 등 주력 사업에서 우수한 시장지위와 안정적인 수익창출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룹의 실적 및 현금창출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LS일렉트릭과 LS전선은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우호적인 업황을 바탕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5년 2월과 2026년 6월 각각 등급전망이 '긍정적'으로 변경되었다. 향후에도 양사의 견조한 영업현금창출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동사의 통합신용도 개선에 있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계열사에 대한 지원 부담:** 주요 자회사에 대한 지원 부담 가능성이 존재한다. LS전선과 LS일렉트릭 등 주요 자회사의 생산능력 확대 및 해외 투자로 대규모 투자가 지속됨에 따라 향후 자금지원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아울러 2022년 LS엠엔엠 인수자금 조달 과정에서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따라 2027년 8월까지 IPO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자자의 풋옵션이 행사될 수 있으며, 최근 정부의 중복상장 규제 강화 기조를 고려할 때 이에 따른 재무부담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주요 자회사들의 우수한 사업경쟁력과 안정적인 현금창출력을 감안할 때 자체적인 투자재원 조달능력은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투자 확대 및 풋옵션 현실화에 따른 재무부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2) 등급변동요인

AI 및 데이터센터 구축 확대에 따른 전력인프라 투자 증가 등 우호적인 사업환경이 지속되면서 주력 자회사인 LS전선의 등급전망이 '긍정적'으로 변경되었다. 2025년 2월 LS일렉트릭에 이어 LS전선의 등급전망도 '긍정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요 사업자회사의 자체신용도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는 동사의 통합신용도 상승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표 4] 등급변동요인

상향변동요인 A+(P) → AA-(S)	✓ LS전선, LS엠엔엠, LS일렉트릭 등 주요 자회사들의 신용도 개선
--------------------------	-----------------------------------------

[유의사항]

- (1) 한국기업평가(주)(이하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분석 시점에서의 당사의 의견입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보고서 등의 제반 연구자료(이하 ‘간행물’)는 상기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당사 또는 필자 개인의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신용위험을 제외한 다른 위험(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의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및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의견은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며,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의 미래 상황능력 등에 대해 예측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러한 예측정보는 실제 결과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환경변화 및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 신용등급 산출 및 간행물 발간(이하 ‘신용평가업무 등’)에 이용되는 모든 정보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는 제3자 요청 신용평가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 산출 시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신용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정보의 오류 및 사기, 허위에 따른 결과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3) 당사는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분석자·분석도구 또는 기타요인에 의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는 신용등급 및 간행물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거나 확약하지 않습니다. 당사 간행물의 모든 정보들은 신용평가업무 등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니며,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당사 신용등급 및 간행물 상의 정보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4) 당사는 금융상품의 매매와 관련한 조언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정 유가증권의 매수, 매도 혹은 보유를 권유하는 정보가 아니며 시장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정보도 아닙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그 내용으로 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고 금융상품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은 스스로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각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시장 전문가를 일차적인 이용대상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개인투자자에 의한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여 개인투자자 스스로 투자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외부전문기관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시되지 않은 신용등급이나 제3자 요청 신용평가에 따라 산출된 신용등급의 경우 신용평가 요청인 이외에는 해당 신용등급을 믿고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 (5)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사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Copyright 2026, Korea Ratings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대표전화: 368-5500 FAX: 368-5353.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한국기업평가(주)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정보도 당사의 서면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되거나 복사, 인용(또는 재인용), 배포될 수 없습니다.